

KISA & KISA

엄마들의 모임, '워킹맘'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 해 봤어?
안 해 봤으면 말은 말어!

여성의 사회진출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 만큼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육아,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소위 '워킹맘'의 고충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과 가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여성들에게는 '수퍼우먼'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다. KISA에서도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해 내는 수퍼맘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워킹맘'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Q..동호회를 처음 만들게 된 동기는?
A. 워킹맘은 아이를 키우면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모임이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들이다 보니 출산, 육아, 직장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한 것이다.

Q..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A. 지난 2007년 8월에 만들었다. 같은 층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출산휴직 후 복귀했을 때 꺼낸 육아 고민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 각 단별로 아이를 키우는 여직원들에게 공지메일을 보내 15명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결성됐고, 현재는 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Q..워킹맘 동호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롭겠다.
A. 아무나 갖추기 어려운 가입조건임

에는 틀림없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는 수퍼우먼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Q..워킹맘이 있다면 워킹파파도 있을 수 있을텐데.
A.. 시대가 많이 변해 남성들도 육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실제 가입회원은 없지만, 호시탐탐 회원가입을 고려하는 남성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금남(禁男)의 동호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해 줘야겠다. 언제든 환영이다. 물론 아이는 있어야겠지만.

Q..동호회 활동은 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나.
A. 워킹맘의 특성 상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을 갖기 쉽지 않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달에 한번 정

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처럼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기념일에는 선물을 함께 구매하기도 한다.

Q..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A.. 지난 4월 KISA 창립기념일을 이용해 동호회 회원들과 아이들이 모여 놀이동산을 찾았다. 아이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친해져 함께 놀더라. 비록 엄마들에게는 고된 하루였지만 뿌듯했다. 내년 창립기념일에도 추진할 예정이다.

Q..워킹맘에 대한 회사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다. 회사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워킹맘은 특성 상 별도의 모임을 가질 시간이 정말 많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s